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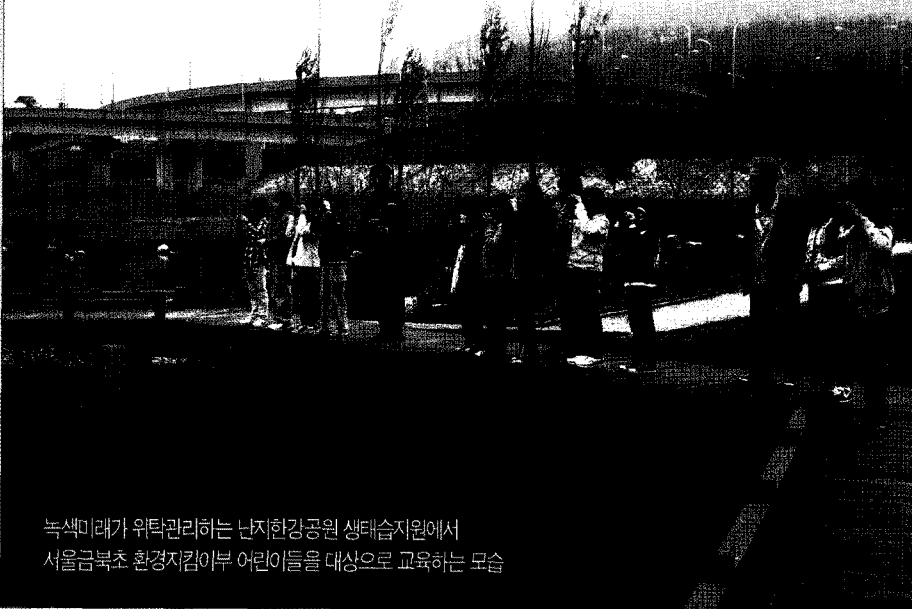
관계기관  
소개 **1**  
River & Culture

### 1. 단체소개



녹색미래는 물과 공기, 자원순환, 기후변화와 에너지, 생태 및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환경단체이다. 다른 환경단체들이 정부 정책 비판이나, 사회적 이슈 중심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면, 녹색미래는 그보다는 시민들의 생활 속에 파고들어 가정에서의 CO<sub>2</sub> 줄이기, 도시에서의 물순환을

이루기 위한 방법 제시 등과 같이 생활 속 실천을 중점에 두고 활동하는 단체이다. 경제학자 슈마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처럼 녹색미래는 생활 속 작은 실천을 실현하여, 이



녹색미래가 위탁관리하는 난지한강공원 생태습지에서 서울금북초 환경지킴이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모습

<http://www.greenfuture.or.kr>

를 통한 사회적 불결을 이루려는 뜻을 품은, 현재의 시대보다는 앞날의 환경을 대비하는 NGO(비정부기구)인 셈이다.

## 2. 녹색미래 연혁과 주요활동

1997년 세민재단으로 시작한 녹색미래는 국제시민사회리더양성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2001년 명예교사 대상 대체에너지아카데미를 개최하여 교육하였으며, 양평군 물정책 연구를 통해 물이라는 자원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깨닫고 수자원 관련 활동에 앞장서왔다.

이 해 ‘녹색미래’로 명칭을 변경한 후에는 연구보다는 생활속 실천에 매진해왔다. 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실천, 도심에서의 물순환을 이루기 위한 빗물이용시설 확대, 하천의 수질을 높이고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제시,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환경교육을 시행하여 미래세대를 대비하는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는 사업을 펼치려 노력해왔다.

- 1997. 세민재단 설립
- 1998. 세민재단 창립식
  - 1 환경부 재단 법인 설립허가
- 2000. 국제시민사회리더양성 프로그램 (인터코디아카데미)
- 2001. 녹색미래로 명칭변경
  - 명예교사 대상 대체에너지아카데미,
  - 양평군 물정책 연구
- 2002. 차세대 재외동포 자원봉사프로그램
  - 친환경방송 만들기 사업
  - 지자체 쓰레기수거 경로추적 연구
- 2003.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 체험환경교육
  - 춘천물포럼 참여 및 기획
- 2004. 빗물모으기 국제심포지엄
  - 친환경농업확대를 통한 수질 보존사업
- 2005. 빗물이용 및 자원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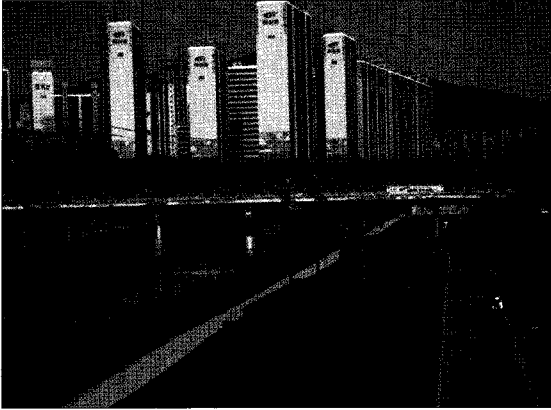
- 독일 신재생에너지 실태조사
- 2006. 제4차 세계물포럼 준비 위한 한국물포럼
  - 민간위원회 간사단체
  - 학교 환경동아리 교육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민간협의체 참여
  - 빗물활용시스템 적용 및 확산활동
- 2007. 서울 차 없는 날 캠페인 기획 및 참여
  - 서울시 물순환시스템 시민 인지도 확산사업
- 2008.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조성사업
  - 신재생에너지 확산사업
  - 도심 물순환 회복을 위한 활동
  - 에코ABC 조성사업
- 2009. 난지한강공원 생태습지원 위탁 관리
  - 기후변화 특성화 연구학교 운영
  - 녹색구매실천단 구성 및 운영
  - 온도실태조사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
  - 탄소제로를 위한 친환경학교 조성 및 운영
- 2010. 학교 에너지컨설팅 및 온실가스 5% 감축하기
  - 빗물 가두고 머금기 시설 만들기
  - 탄소중립실천학교 조성 및 기후변화·에너지 교육
  - 친환경성을 중심으로 보는 시청자권익보호제도 운영실태 및 만족도 조사
  - 기후변화 대응 에코패밀리·스쿨 조성 및 실천사업
  - 탄소중립실천단 구성·운영 및 녹색학교·녹색가정 조성
  - 아리수 아파트 만들기

## 3. 수자원 관련 활동

### 3.1 하천조사 및 수질모니터링

서울시 불광천, 홍제천, 정릉천 등의 하천복원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는 등 하천을 조사하고, 수질 및 생태를 모니터링 하는 사업. 서울시의 경우, 복개하천 복원계획 추진에 따른 주민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성내천 수질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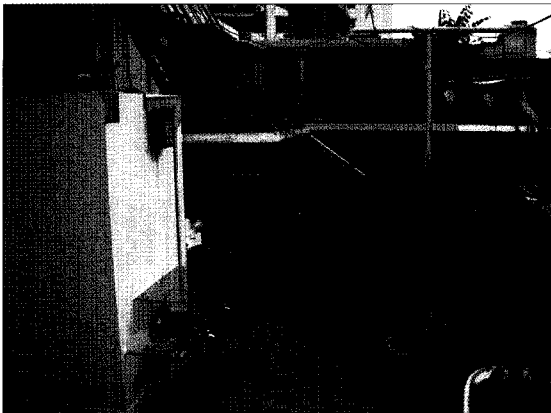
및 생태계 모니터링을 시행한 적도 있다.



(그림 1) 자연형하천 조세(부산 온천천)

### 3.2 빗물 이용 및 자원화

빗물 자원화에 대한 대중인식 확산, 정책대안 제시, 구체적인 사례 발굴, 지속가능한 빗물 이용 기술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다. 도심에서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빗물을 모아 자원화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전국 빗물이용실태 시민조사 및 빗물모으기 운동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의 사업, 서울 시에는 빗물 저류조 설치를 건의하고, 빗물관련 조례제정을 제안하였으며,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그림 2) 서울시 가정집 빗물이용시설 모니터링

### 3.3 수질보전 및 물순환시스템 확산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권장하고, 이를 교육 및 홍보하며, 소비를 확대하는 사업을 2000년 초부터 펼치고 있다. 유기농산물 애용과 수질보전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활동도 시행한 바 있다. 친환경적 테크노밸리 조성, 양평군의

맑은물사랑 및 유기농업, 경기도 하천수질 개선, 양구 파라호 생태계복원 및 수질개선을 위한 습지조성기본계획, 인공 습지조성을 통한 수질보전방안 등의 연구성과도 있다.

서울시가 2000년대 중반부터 추진 중인 도심물 순환하게 만드는 물순환시스템 구축에는 적극 참여하고 있다. 물순환시스템에 대하여 인지도 및 구축방안 설문조사, 전국 주요 자치단체의 유출계수 및 물순환 정책 조사, 물순환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한도시만들기 사업도 벌였다.

### 3.4 지속가능한 수자원 보전 및 확보활동

지속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06년에는 세계물포럼대회를 준비하는 한국물포럼 민간위원회의 간사단체를 맡은 바 있으며, 춘천물포럼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고, 수자원을 장기적으로 다량 확보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에도 적극 참여 중이다.

## 4. 기후변화대응 활동

### 4.1 탄소중립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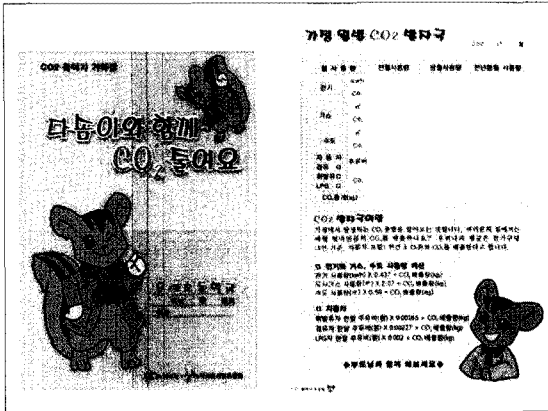
탄소중립이란 이른바 탄소를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탄소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시민 스스로 자신이 발생한 탄소량만큼 자원봉사 등을 통하여 상쇄시킴으로써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석탄, 석유 등)의 가장 비중이 큰 CO<sub>2</sub>를 줄임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활동이다. 녹색미래는 학교 및 가정에서, 학생, 교사, 주부, 회사원 등이 CO<sub>2</sub>를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 4.2 CO<sub>2</sub> 발자국 만들기

시민들에게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즉, 'CO<sub>2</sub> 가계부', 'CO<sub>2</sub> 줄이기 기록장', '탄소 나무통장' 등의 홍보물을 만들어 가정, 학교 등에서 CO<sub>2</sub> 발

자국을 만들고, 이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권장하고 있다.

전기와 물, 가스 사용량, 자동차 운행,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으며, 가계부 작성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각자가 얼마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가를 스스로 측정하여, 그 심각성을 느끼고 자발적인 동참을 통해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이게 하는 방식이다.



(그림 3) CO<sub>2</sub> 줄이기 목표장 표지 및 가정 월별 CO<sub>2</sub> 발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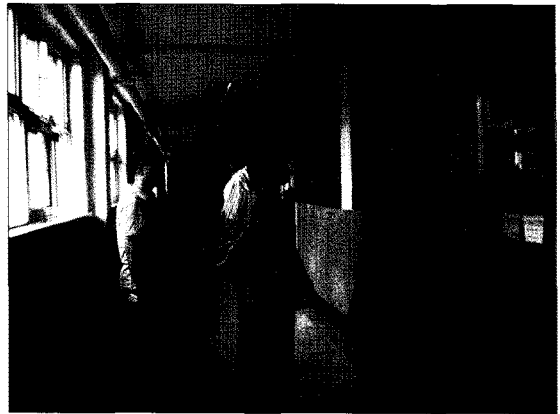
### 4.3 기후변화 학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성화 연구학교, 탄소중립 시범학교 등의 명칭으로 학생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에너지지킴이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학교에는 녹지를 조성하거나,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시설 등을 교체 또는 신설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실천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고 있는 셈이다.

### 4.4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소규모 건물에 대하여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하는 활동. 2,000toe 이상의 대형 건물이나 업체의 경우, 의무적 에너지 진단 대상이다. 또한 가정의 경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이 'CO<sub>2</sub>닥터'라는 진단사를 양성하여 이를 통한 진단을 벌이고 있다. 반면, 학교 및 상가,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오피스빌딩 등 소규모 건물의 경우, 의무적 에너지 진단 대상이 아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이 필요

한 곳에 녹색미래가 진단하고 컨설팅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사를 양성하여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4) 서울상천초등학교 에너지 진단

## 5. 그린모니터 활동

### 5.1 친환경 방송 만들기

대중매체의 역할과 영향을 인식하고 전문적인 모니터를 통해 방송매체의 바람직하고 친환경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친환경적 방송유리에 기초하여 시민단체와 시민이 함께 감시하고 참여하는 새로운 방송문화의 틀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 제안 내용을 언론매체, 인터넷으로 홍보하며, 사회적 반향을 유도하고, 방송과 일반인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 5.2 시청자 권익보호활동

시청자들은 드라마나 예능 등의 선정·폭력성 등에 물들고 있다. 또한 도덕적 불감증이나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며, 동식물을 마구 해치는 등의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청자들은 제작자의 이러한 일방적 전파에 따라 시청자가 더 나은 환경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작부터 원천적으로 시청자의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제작환경을 유도해야 한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환경친화적 가치

관 등이 반영되어 시청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림 5) 친환경성을 중심으로 보는 시청자권익보호제도 정책워크숍

### 5.3 다양한 매체환경 개선활동

인터넷이나, 언론, 방송 등 기존 매체에 대해 다양한 비평 등을 통해 개선시키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웹2.0 시대에 걸 맞는 쌍방향매체 공유로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활동이다. 인터넷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 언론비평, 방송 비평 등을 통한 매체환경 개선활동이다.

## 6. 환경교육활동



(그림 6) 지구본 및 물방울여행 교구를 활용한 유치원 환경교육

### 6.1 눈높이 맞춤형 환경교육

전세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국 물교육재단의 교구를 활용한 환경교육, 물방울 여행, 물발자국 만들기, 지구본 및 실

린더를 활용한 지구물분포 교육, 도화지를 활용한 상하류 오염지도 그리기, 페트병을 활용한 수생식물 키우기, 외래식물로 한지부채 만들기, 탄소측정기를 활용한 기후변화 등의 교구를 활용하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펼치고 있다.

## 6.2 시범학교

학교마다 환경동아리 또는 반 단위 등으로 시범학교를 구성하여 교육하는 방식. 반 또는 동아리 단위로 절수기, 멀티탭, 타이머 등을 나누어주고 몇 개월 동안 가정에서 실천토록 한 다음, 이를 통해 가정별 CO<sub>2</sub>가 얼마나 줄었나를 점검하는 활동. 동아리 또는 반 단위로 에너지지킴이를 구성하여 학교의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체크하고, 스스로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 7. 기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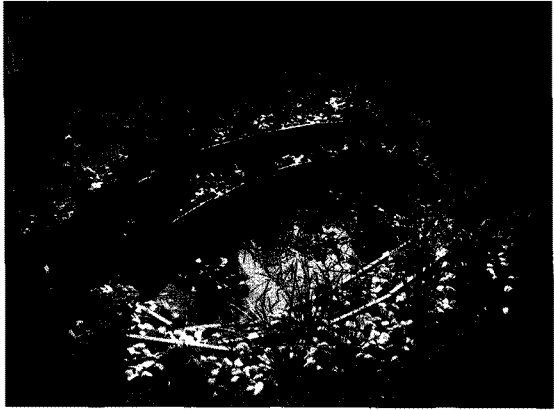
그외 기타 활동으로는 블루스카이운동, 지구의날 캠페인, 난지한강공원 생태습지원의 위탁관리, 한국환경회의, 에너지시민연대, 녹색구매네트워크,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과의 연대사업 등도 벌이고 있다.

## 8. 진행 중인 사업

화석연료(석탄, 석유 등)의 증가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구에 이상기후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기후가 변화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폭우, 가뭄, 해일 등 기상 이변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쪽에서는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홍수가 발생하고 있는 등의 왜곡된 형태의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며, 엘니뇨, 라니냐 같은 재앙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에 녹색미래는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에는 CO<sub>2</sub>를 실제적으로 줄일 수 있는 '탄소중립실천



〈그림 7〉 서울두산초등학교에 조성한 빛물연못



〈그림 8〉 서울상천초등학교에 조성한 빛물연못

단 구성·운영 및 녹색학교·녹색가정 조성(그린스타트네트 워크), '학교 에너지컨설팅 및 온실가스 5% 감축하기'(녹색 서울시민위원회), '기후변화·에너지교육 및 환경교육'(에너지시민연대), '기후변화대응 에코패밀리·스쿨 조성 및 실천'(서울특별시)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빛물 이용 및 자원화 사업으로는 '빛물 가두고 머금기 시설 만들기'(서울특별시), '수돗물 이용을 권장하는 '아리수 아파트 만들기 사업'(서울특별시)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미디어 환경개선을 위한 '친환경성을 중심으로 보는 시청자권익보호제도 운영실태 및 만족도 조사'(방송위원회) 등의 사업도 벌이고 있다.

### 9. 맺음말(녹색미래의 미래)

지구상에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구온난화, 산성비, 오존층 파괴, 자원고갈, 식량난 등과 같은 환경위기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생태계 먹이사슬의 최종 소비자로써 인간이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끊임없이 자연을 변형시키거나 파괴하여 생태계의 질서를 교란시켜왔고, 그 결과 인간 스스로가 생존하기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녹색미래는 지난 30~40년 전부터 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자 한다. 동시에 시민들과 함께 우리 현실에서 미

래지향적이고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찾고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

녹색미래는 현시대의 사회적 이슈나 정부 정책비판보다는 학생, 주부, 회사원 등의 작은 실천을 통하여 미래세대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정이나, 학교, 기타 조그마한 공간에서 시작하여 사회적 파급력을 갖고, 양질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